

『고민』

황범진 목사 | 해광교회



목회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소회
 저는 부교역자로 7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는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비하면 목사라는 직분으로 불리는 것이 익숙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몸뚱바를 모르겠습니다. 부교역자로서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자주 생각했던 것은 '목회란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끊임없이 제 안에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하여 사역하면 할수록 점점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지나온 사역지에서 만난 많은 사역자를 기억해봅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성경이 말하는 목회의 본질을 잘 모른 채 혼란을 겪었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인상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교회를 맡아 섬기는 것을 마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처럼 여기시는 것입니다. 기업 경영과 목회가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고 또 저를 힘들게 했던 단어가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교회마다 영혼 사랑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실하게 영혼을 사랑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사역 현장에서 보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영혼 사랑이란 말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기보다는, 주로 경영적인 마인드에서 교회에 많은 성도가 모이도록 힘써야 함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성장하여 교회의 멤버 수가 늘어나는 일을 영혼 사랑이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실로 한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의 구원과 회심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수를 사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을지를 중요한 문제로 고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 사랑으로 외쳐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여 성도 수를 늘리는 것을 성공한 목회라고 여겼습니다. 사업체를 키우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 목회와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 사이에서 큰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고민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교회의 사역자들이 설교 사역에 매진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설교 사역이 중요하다고 외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역자는 없었습니다. 모두 설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사역에 설교 준비에 몰두하는 사역자는 적었습니다. 설교 사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목회의 시간 속에서 매우 적은 것입니다. 설교가 결코 목회의 핵심이라고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설교에 모든 것을 쏟지 않습니다. 설교가 아닌 교회 성장 프로그램과 세미나, 심방 등 다른 것에 힘을 쏟았습니다. 기업들이 하는 마케팅을 벤치마킹하여 고객행위를 하는 것 같이 인간적인 방법들도 교회에 이모저모로 적용되었습니다.

신학적인 고민
 교회에서 정말 '데이비드 웰스'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

중심적인 사역과 예배'가 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교리도 신학도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책에서 경고한 모습 그대로 한국 교회의 현장은 심각하게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강령하는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죄와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아 설교를 하거나, 교리적이고 변증적인 설교를 듣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철저히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들이 즐겨워하고, 듣기 좋아하며, 잠시 시간의 위로 주는 설교가 쏟아졌습니다. 그 근간에 기복주의적인 메시지들이 터를 이루었습니다. 강단에서 교리와 신학이 묻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험 속에서 한 교회에서는 설교 중에 교리와 신학을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은 심한 저항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하고 거부해하므로 그러한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졌고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대변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의 조그마한 경험 세계 안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진실하고 바른 진리를 전하고, 그와 합치한 교회를 이룬 교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을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성경대로의 교회를 이루고, 참교회의 외적인 특성과 내적인 특성을 추구하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 적은 것만은 분명한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길을 잃고 헤매는 듯 보입니다. 그 속에서 격게 되는 교회의 여러 부정적인 경험에 고민되었던 것입니다.

참교추 회원들과 같이 나눌 생각들
 지금까지 저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지나온 교회들에서 겪게 된 안타까운 일들 속에서 있게 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섬겼던 교회들과 저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싶습니다. 분명 저에게도 한국 교회의 연약함의 한 면이 있고, 또 책임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혁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뀌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동안 교역자로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갖도록 기여한 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리와 신학을 실제의 견건한 삶으로 녹아내리지 못한 채 말씀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원화된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부끄럽습니다. 위선하는 자의 모습으로 강단에 서지 않기를 더욱 바라고 힘써야만 합니다. 제가 맡은 부서에서도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라도 저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참된 예배자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책 나눔 모임을 할 때에도, 찬양 인도를 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을 생각하며 조그마한 일에 충성되어 섬기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리를 전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허공을 치는 지식으로 전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부담감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전과는 달리 복음의 열정이 식어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복음에 감격하고, 복음의 영광을 확신하는 일에 차가워져 있는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몹시 힘이 듭니다. 제 앞에 모인 회중들은 분명 심히 갈한 영혼들일 것입니다. 몇 명이 보이든 그들은 불타는 복음, 생명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갈하여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전하여주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붙는 진리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차가운 이성으로만 전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를 진실하게 섬기기 위해서는 이 일이 저에게 꼭 필요합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참된 성도가 먼저 되지 않는다면 참된 목회자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굳게 갖습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사랑하는 참교추 회원 여러분,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거시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부터 미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것이 단순한 캐치프레이즈가 되고 우리를 위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는 허울 안에서 우리 스스로 폐쇄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의 논쟁 가운데 폐쇄적이고 분리주의적으로 나아가 그 그룹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 것과 실제로 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참된 교회의 지체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목회자인 우리 먼저 개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실제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의 중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참된 교회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세워져 갑시다. 이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참교추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교추 칼럼

If you don't do it, you don't have it.

지금 까지 내가 읽고 또 경험했던 모든 내용들을 통해 도달한 한 가지 선명한 결론이 있다. 그것은 죄인들에게 유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깊은 영적 유지 능력은 기도와 묵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오직 기도와 묵상에 전념한 자들만이 이러한 일에 성공할 수 있다. 깊은 영적 능력을 유지하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다. 종종 나는 나의 거룩한 열망이 행동에 앞서는 일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므로 나는 기도처를 만든다. 이 일은 나의 영적 전쟁에 대비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부이다.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4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온갖 고초를 견뎌낸 인물인 찰스 시몬(Charles Simeon, 1782-1836)은 이에 대한 좋은 모범이다. 그의 친구인 하우스만(R.Housman)은 몇 달 동안 찰스시몬과 함께 지내며 알게 된 그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하우스만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찰스 시몬과 같은 일관성, 진정한 헌신, 열렬한 경건, 열정과 사랑을 본 적이 없다. 그는 겨울에도 새벽 4시에 변함없이 일어났다. 먼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하루의 처음 4시간 동안 개인 기도와 성경 연구에 헌신적으로 전념했다. ..." "바로 여기에 그가 지닌 위대한 은사와 영적인 능력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처럼 깊은 근원에서 교훈을 이끌어내고, 그런 근원함을 통해 진리를 구했으므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렸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찰스 시몬의 이러한 기도와 묵상의 헌신은 우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 다시 말해서,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이나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성경은 이처럼 기록한다.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대답하셨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것이다(막 9:28,29). 그 말씀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현장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곧 그들의 일상을 말씀하신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생활과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신 것이다. 거꾸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막 9:25).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셨다. 그분은 늘 기도 안에서 사셨다는 의미이다. 예수님은 일상 속에서 늘 기도하셨다. 온 밤을 지새며 기도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라도 악의 세력에 대적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은 낙약해졌고 기도를 소홀히 했음이 분명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강력한 악의 세력들에 직면했을 때 무력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지속적인 기도가 없으면 악한 세력과 싸울 때 공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단의 요새로 쳐들어와 승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지만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방어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즐기고 있었다. 악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 자신들을 지키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기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막 14:38).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 곧 유혹의 덫에 빠져들고 말 것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진지하고 확신 있는 기도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능력을 소유해야만 악의 세력에 대항하여 방어와 공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찰스 시몬이 보여준 모범을 기억하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기억하자. 그리고 제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기도하지 않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들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처를 세우는데 좋은 자극제로 여기라. 그리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간헐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기도 생활을 하라. 하우스만이 말한 것처럼 '일관성과 진정한 헌신'을 겸비한 기도 생활을 하라! 우리에게 기도가 없으면, 능력도 없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없다.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기를 바란다.

John Piper <묵상1> 참조

月刊 참교추

2021년 8월호 통권 7호

News

- 9월 정기 모임
- 9월 27일(월) : 10시 30분
 - [대담]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
 - [조별] 삼위일체와 구속언약
- 정기모임 여름방학
- 기간 : 6월 22일 ~ 9월 19일
 - 개강일 : 9월 27일(월) 정기모임

- 2021 참교추 컨퍼런스
- 주제 : "무너진 믿음, 오직 믿음" (Sola Fide)
 - 장소 : 하늘영광교회(강동구 암사동)
 - 시간 : 10월 25일 10시 개회



제주도 참교추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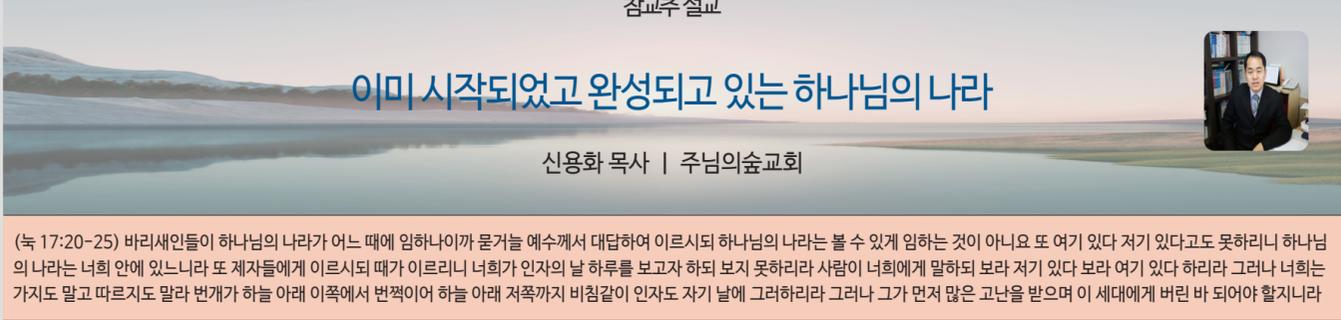


높은뜻교회(김영채 목사)



송정교회(안기문 목사)

◆ 참교추 정기모임 조편성		◆ 참교추 모임안내		◆ 2021년 회원교회	
1조	김영제 강동훈 김시은 김학재 박지성 오준석 정병윤	정기 모임	매월 3번째주 월요일	• 광명민음교회(광명)	• 영남교회(대구)
2조	김훈 강성대 김성민 김종원 박충성 이대원 차지태	정기 세미나	매년 5월 마지막주 월-수	• 광아의성교회(수원)	• 오빈교회(양평)
3조	이성규 강육남 김양수 김중구 배국환 이성준 정우열	컨퍼런스	매년 10월 마지막주 월요일	• 높은뜻교회(성북)	• 은혜의성교회(하남)
4조	정중남 김대성 김영남 김용석 서재길 이원범 황병진	부부 수련회	매년 1월 마지막주 월-화	• 두루선교회(서초)	• 주님의성교회(수원)
5조	최은상 김명일 김영채 박경태 신용화 이준동 권오인	신입회원 나눔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 물안동산교회(강서)	• 참사랑교회(동대문)
6조	강사명 김선민 김완술 강성일 안기문 임정택 박상우			• 백마누리교회(일산)	• 충만한교회(시흥)
				• 생철교회(김해)	• 하늘가속교회(금천)
				• 세계로교회(시흥)	• 하늘기쁨교회(부천)
				• 송정교회(포천)	• 하늘영광교회(강동)
				• 심플교회(시흥)	• 함양민들레교회(함양)
				• 양무리교회(강동)	• 버림당한교회(영국)



(눅 17:20-25)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는 이처럼 답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질문과 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때’를 물었는데,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定義)’로 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답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이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 왕 때와 같이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말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임하면 그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단숨에 제압한 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기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현재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외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정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는 나라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는 말씀을 주의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마음 안에’ 또는 ‘너희 마음속 에’라고 해석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단지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마음속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리적이거나 내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마음의 외부에 실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임하는 실존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너희 안에’를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께서 이미 앞선 사역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미 그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하였고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실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참교추 설교



신용화 목사 | 주님의숲교회

니까?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느끼며, 보며, 확인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실체를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확인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증거를 통해 실체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눅10:9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치며 이처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가 치료될 때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하였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눅 11:20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 내셨을 때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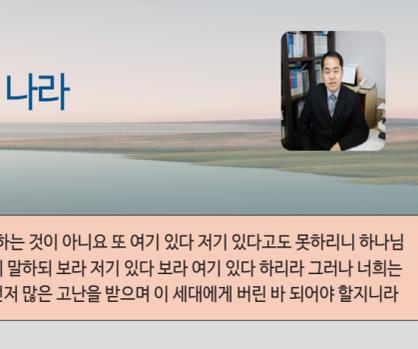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께서 행하실 때 모두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 3:3에서 니고데모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 3:3)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오직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이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러한 자들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나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2절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미래의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22절). 예수께서는 앞으로 이르게 될 또 다른 ‘때’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21절에서 주님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에서는 또 다른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그때 곧 인자의 날이 이처럼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4절).

이 말씀은 분명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때’가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초림으로 인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재림으로 인해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어디이고,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말고 주의하라

우리가 사는 종말의 시대는 역사가 진행될수록 더 약해지고 영적으로 혼탁해질 것입니다. 딤후 3:1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런 현상은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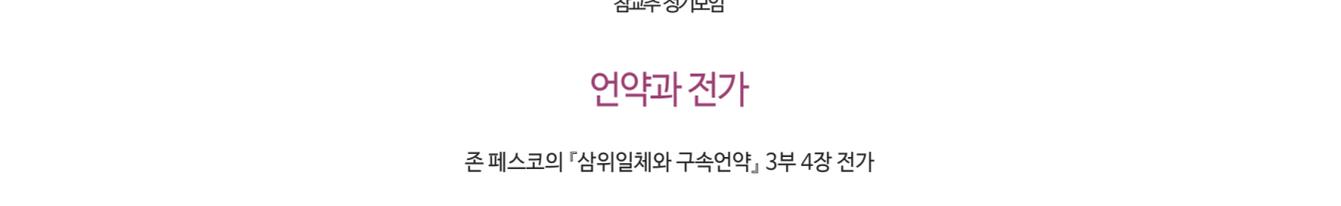
이처럼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 우리들은 현실이 심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빨리 주님의 날이 오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이러한 사람들의 영적인 갈증과 어려움을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 저쪽에서 번쩍해서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오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의 날이 번개처럼 갑작스럽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평소애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두려움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주께서 재림 때에 모든 사람이 일시에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인 방식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능력 가운데 구름 타시고 오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에 곧바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끝나게 됩니다. 재림주가 왔는데도 세상이 달라진 것이 없다면 이는 거짓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의 초림과 구속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임하였고 시작되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온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고난을 겪고 악인은 득세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왔고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증거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여들의 세력인 사단이 더 대적하고 저항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니 반드시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누룩이 퍼지듯이, 지극히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완성을 향해 자라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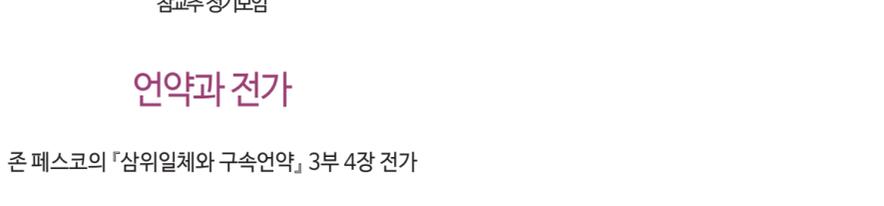
설교 전문을 축소 편집한 것입니다.



언약보증인
성자의 보증인 개념이 나타나는 중요한 본문 중 하나는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앵귀오스)이 되셨느니라"(히 7:22) '앵귀오스' 곧 보증인은 계약의 법적 조건이 이행될 것임을 보증하고 약속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자가 영원 가운데서 언약 보증인으로 임명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 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성자는 이 맹세와 함께 언약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언약 보증인으로서 성자는 언약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언약 위반의 결과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언약으로 묶여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개인이 공동체와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언약 보증인이 이스라엘과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룹이 개인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개인-공동체)의 언약관계 속에서 성자는 언약 보증인으로 계십니다.

아간의 죄
성경의 인물 중 아간은 (개인-공동체)의 역할 관계를 잘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아간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삼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수:7:1)라고 기록합니다.



즉 아간 개인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범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렘을 명하셨으나 아간과 묶인 이스라엘이 헤렘을 행하지 않고 ‘마알(죄)’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의 죄악된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여겨진 것입니다. 또한 아간 개인이 범죄하였음에도 ‘아간의 계보’를 기록한 것을 볼 때, 아간이 단독으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간 계보의 공동의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간 사건은 언약적 관계인 (개인-공동체)의 역할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이 공동체적 연대로 죄책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언약적으로, 법적으로 아간에게 묶여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개인-공동체)의 역할 관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범죄 속에서 이러한 관계가 잘 나타납니다. 다윗 개인이 단독으로 인구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가 온 이스라엘에 미쳤습니다. 개인의 범죄로 공동체가 큰 죄를 당했습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행위가 공동체와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다윗은 (개인-공동체)의 관계로 묶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인자
성경이 예수께 돌리는 많은 호칭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마가와 베드로의 관계

마가는 비록 사도는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집에서,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밖의 유력한 제자들과 맺은 관계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였습니다.

마기복음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2세기 초반 히에라폴리스에서 사역한 파피아스(Papias)에게서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이 수집한 초대 전승들 가운데 마기복음에 관해 말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었다.”

마가는 과연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의 “통역자”였을까요? 마가가 베드로의 아람어 복음서를 헬라어로 옮긴 번역자라는 의미에서는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람어 원문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서신서들을 놓고 판단하건대 베드로가 마가보다 헬라어를 더 잘 구사했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파피아스(Papias)는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직접 듣고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청중의 당면의 필요에 맞춰 전한 설교를 직접 듣고서 마가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목회자로서 부딪히는 아픔과 좌절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수많은 오해와 반대와 거절이 도사리고 있는 길이지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들은 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존 맥아더는 50년 동안 평생한 교회만을 섬기는 신실한 목회자의 표상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흔들림 없이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남긴 모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존 맥아더는 목회를 시작하며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그에게는 낙담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슬한 오해와 핍박에 시달렸고,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부여받은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바울을 향해 몰아친 맹비난과 공격에 맞선 그



것이 “인자”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서 인자를 봅니다. 다니엘의 인자에 대한 언급 또한 (개인-공동체)의 표현입니다.

먼저 인자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개인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인자는 메시아 개인입니다. 피조물을 다스릴 왕의 권세를 받는 하늘 구름을 타는 신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인자는 또한 “나라를 얻고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는” 인자로써 그의 백성과 결합된 공동체입니다. 즉 인자는 성도와 결합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에서 나오는 네 마리의 ‘큰 짐승’도 이와 같습니다. (개인-공동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각각 개인으로써 어떤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또한 각각 강력한 나라 곧 ‘공동체’를 가리고 있습니다.

언약 보증인의 전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개인)의 언약 보증인 역할이 그의 모든 <공동체> 백성들을 향하는 구속 혜택의 근거가 됨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 보증인이 행하시는 순종은 개인으로서 행하였지만, 공동체가 행한 것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전가의 방식으로 성자는 구원의 확고한 토대를 쌓았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언약 보증인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필립사트 교회사 전집 '사도적 기록' 484-485p를 축소 발행한 것입니다.

복음을 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설교 스타일이 청중의 필요에 맞춰서 가르치는 타입이었습니다. 주님의 강화를 연계성 있게 전달하는 방식보다는 앞에 놓인 청중의 필요를 더 우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마기복음의 구성이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교훈부의 내용이 적고, 또한 엄격히 연대순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는 로마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베드로의 비서인 마가에게 그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청했고, 그것에 대해 베드로는 권장하기도 가로막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른 고대 교부들은 마가와 베드로가 대단히 친밀했음을 강조하며, 마가의 복음서의 별칭으로 베드로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존 맥아더 / 부흥과 개혁사 / ISBN 9788938816634

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존 맥아더는 이 고백에서 위기에 맞닥뜨린 목회자가 적용해야 할 9가지 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회자의 가슴에 새기고 고백해야 할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새 언약의 우월성, 하나님의 자비로 부름받음, 순결한 마음의 필요성, 신실한 말씀 선포,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음, 목회자 자신의 무가치함, 고난의 유익, 용기의 필요성, 영원한 영광의 약속에 대한 확신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에게 몰아친 거센 폭풍우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 견고한 확신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실패와 사역에 대한 과중한 부담으로 목회자의 탈진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오늘날 이 책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끝까지 인내로 사역하고, 맡은 역할을 건장하게 감당하며,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도록 목회자의 마음을 굳건히 세워줄 것입니다.